

이
가
함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경배자로
되어감

믿는 자의 권세

www.gillministries.com

찬양과 경배

에이.엘. 과 조이스 길 씬

Gill Ministries

Website: www.gillministries.com

연속적으로 출판된 교재들

믿는 자의 권세

실패를 그치고 승리를 시작하는 방법

승리를 거둔 교회

사도행진을 통하여

병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신유의 권능을 받음과 줌

사역을 위한 은사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

기적의 복음전파

세계를 전도하는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임을 알게 됨

삶의 모형들

구약 성경을 통하여

기도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옴

초자연적인 삶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저자들의 약력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 저자들이며 성경 교사들입니다. 에이 엘은 세계 60 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도적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행을 하면서 수백만 명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그리고 10 만 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직접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최고의 베스트 셀러인 그들의 책과 매뉴얼들(manuals)은 7 백 만 권 이상 판매되었고,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서들은 세계 도처에서 성경 학교나 세미나에서 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삶을 능력있게 변화시키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역동적인 설교와, 가르침, 저서, 비디오, 오디오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의 '경배와 찬양 세미나'에서 체험하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그 분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담대함과 승리의 새롭고, 흥미 진지한 차원을 발견해 오고 있습니다.

길 부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손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초자연적인 사역 속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모두를 작동하기 위해서 풀려 났을 때 초자연적인 자연스러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신학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에이 엘의 경우 Vision Christian University 의 신학 과정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기반을 둔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과 견고한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권능의 기름부으심과,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이 수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물결처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집니다.

거룩한 웃음과 주님 앞에서의 흐느낌의 물결을 포함한 부흥의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경외할 만한 나타나심이 그들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 의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부치는 글

찬양과 경배에 관하여 공부하는 도중,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감과 동시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한 차원 높은 찬양과 친밀한 경배를 아주 능력있고, 새롭고, 성경적인 표현들로 표현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안에 계시된 진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매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삶을 능력있게 변화시키는 이 연구 과정 중 계시된 모든 것을 그들의 몸, 혼과 영을 풀어놓아 체험하려고 새로운 결단을 내린 모든 이들에게, 즉 성령 안에 있는 능력있는 혁신이 “하나님께 전념”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공부에서 계시된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겨 체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압도적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추천해 놓은 책들**이나 테이프를 상용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의 권세와 영적 싸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이 포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진리는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책은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예화는 효과적인 가르침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그로 인하여 각 교사마다 자신의 풍부한 체험이나 다른 이들의 체험에서 얻은 예화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할 때나 혹은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교재는 개인이나 단체 공부, 성경학교 (정식인가가 용이함 - 마지막 페이지 참조) 가정그룹에서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교사와 학생 양쪽 다 이 책을 구입하여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속에 기입하여 넣고 밑줄을 긋고 또 묵상해 보고 소화시켜 놓은 책이 제일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둔 곳과 해석을 기록하도록 공간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 책은 복습을 위해 빨리 참고내용을 찾을 수 있고 또다시 그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찾는 것이 용이하도록 고안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구성 형태는 각자가 일단 이 재료를 끝낸 후에 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한을 썼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26

이 과정은 사역개발체계(MINDS, Ministry Development System)의 형태로 조직적인 수업을 취득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람들과 사역과 또 학생들의 장래 가르침을 늘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먼저 배운 학생들은 이 책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다른 이들에게 이 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과 찬양과 경배	9
제 2 과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	16
제 3 과 찬양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	24
제 4 과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옴	31
제 5 과 찬양에 관한 성경적 어휘들	39
제 6 과 찬양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46
제 7 과 음악 - 예배의 표현	53
제 8 과 찬양의 육체적인 표현들	59
제 9 과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들	66
제 10 과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림	74
제 11 과 찬양에 관한 우리의 제사장적 역할	83
제 12 과 제사장으로서의 삶	91
제 13 과 찬양과 경배를 통한 승리	98
제 14 과 찬양과 예배 인도자의 자질	106
제 15 과 예배 인도자로서의 사역(섬김)	115

찬양과 경배 교재내용의 성구들은

새 킹 제임스 번역판(*New King James Version*)에서 인용하였음.

출판권 1979, 1980, 1982. Thomas Nelson 출판사

추천하는 책들

다윗의 성막(*The Tabernacle Of David*),

Kevin J. Conner – Bible Temple Publishing

7545 N.E. Glisan Street, Portland, Oregon 97213, U.S.A.

찬양과 경배의 능력(*The Power Of Praise And Worship*),

Terry Law – Victory House, Inc.

P.O. Box 700238, Tulsa, Oklahoma 94170, U.S.A.

서 문

아론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들이 모세의 장막과 그 후로는 솔로몬의 성전에 매일 들어갔던 것과 꼭 같이, 오늘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믿는 자들도 또한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의 장막은 그 궁정의 뜰로 인도해 주는 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궁정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궁정의 뜰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언약 법계가 들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란 천상의 하나님 보좌를 이룬 처소를 대응해 줄 만한 이 지상의 처소입니다. 속죄소로 덮여져 있는 법계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인 지상의 처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면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초자연적으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나 여자든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인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매일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각자 개인의 찬양 시간 속에서 그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 단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취해야 할 순종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임재하심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시편 100:4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그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찬양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첫 번째 노래들은 여호와께 향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데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궁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엄숙한 경배 속에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는 지성소로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궁정”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표현할 때, 손뼉을 치고, 또 두 손을 쳐들고 때로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와 음악 속으로 즐겁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양의 궁정”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끌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압도됩니다. 우리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찬양으로 옮겨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궁정 안”을 거쳐서, 경배 속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잘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음악은 점점 느려집니다. 조금 전에 “질서대로” 되었던 것이 갑자기 정지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의 거룩함이 거의 압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떨고 나가게” 되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노래와 연주를 그저 멈추고, 그의 거룩한 임재 속에 침묵을 지킨 채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과묵히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 채, 그분의 임재 안에 서 있게 됩니다.

거의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휘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 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깝고도, 친밀한 임재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 기쁨 부으심과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든가, 부복한 채로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약계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의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는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 더라.” 열왕기상 8:10, 11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성도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모형을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궁정”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리낌 없는 찬양을 자유롭게, 마음껏 표현하도록 풀어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와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합칠 때까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의 이런 친밀한 순간을 얼마나 원하고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소중하고, 거룩하며, 표현할 길이 없는 진정한 경배의 순간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그의 임재하심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임재로부터 물러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붙들며, 떠나기 싫어 어슬렁거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것처럼 가깝게 밀착되면, 하나님의 인격의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우리의 영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임재 속에서 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더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되며, 더 많이 우리의 삶이 그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 될 것이며, 더욱 더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차원이 가장 높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곳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외침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꼬?” 시편 42:1, 2

법궤가 탈취 당한 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온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끊임없이 그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40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휘장은 없었습니다. 법궤는 모든 예배자들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속에서 행해진 유일한 제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제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오늘날 교회를 위한 예배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 장 16, 17 절에서 아모스 9:11, 12 절에 기재된 말씀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사도행전 15:16, 17

하나님께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그의 교회에 회복시켜 주심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앞서 말한 예언들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각자 각자 저마다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시기를 맞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도록 갈망하십니다. 우리도 그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전하고, 새롭고, 능력있는 찬양의 표현 속에 우리의 영을 풀어 놓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까이 이끌리어, 진정한 예배의 친밀함과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 1 과

찬양과 경배

서론

전 세계 도처에서 성령의 새롭고, 신선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메마르고, 구슬뿔었습니다. 전통적인 노래가 케케묵은, 오래된 찬송가에서 골라서 건성으로 불러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에서 선 채로,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는, 또 심지어는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일은 별로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해 열성적인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서, 무릎을 꿇고, 눈물이 뺨을 적시게 되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교회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더 이상 그들이 노래해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성가대나 혹은 성악가를 구경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강당을 가득채우셔서, 그의 능력이 회중 위에 물결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휩쓸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왕상 8:10~11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윗의 간곡한 권고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간곡한 권고의 말이 오늘날 성령께서 자신의 교회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시 150:1~6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정의

> 찬양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에 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후의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모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 우리의 진지한 감사를 몸으로써 또 성대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 경배

경배는 찬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의 모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생각들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의 인격, 성품, 속성과 완벽하심에 대해 우리의 경애와 찬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분이 행하신 모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비교점

찬양

찬양이란:

- > 좋게 말함
- > 경애를 표현함
- > 칭찬함
- > 칭송함
- > 축하함
- > 갈채를 보냄
- > 찬사를 보냄
- > 격찬함

찬양은 여호와에 관해서 - 얼마나 그가 놀라운 분인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말하고, 혹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경배

경배란:

- > 존경을 포함

- 경외감을 가짐
- 경배드리는 대상 앞에 몸을 낮추어 절함
-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드림
- 직위를 내 드림

경배란 여호와에게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배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최고의 찬양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찬양입니다.

첫째로:

- 심령의 태도
- 창조자를 공경하는 업무
- 심령이 속에서 불타기 시작함
-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진가를 깊이 묵상함

그렇게 되면 경배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서 저절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경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몰두하게 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배는 존경, 경외감, 경이감과 경애하는 깊은 표현이 영혼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경배란 무엇인가?

경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배가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령으로(In Spirit)

우리가 진정한 경배를 여호와께 드리자면 우리의 영으로부터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으로 예배함은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함은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즉,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heart) 혹은 영(spirit)이라고도 부르는 같은 장소인 그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배드림을 뜻합니다.

진정으로(In Truth)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내적 깊이를 살펴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잠 20: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더불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요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자신을 씻음

하나님을 욕으로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욕신적인 생각과 악에서 우리 스스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골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16~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스스로를 씻어야 하며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욕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영외에 어떤 다른 것들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첫번째 본보기

아브라함은 경배를 드렸음

경배에 관한 성경의 첫번째 언급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입니다.

창 22:5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첫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떤 다른 곳에서 일어날지라도 어떤 주제에 관해 제일 먼저 나타난 성경의 언급이 그것의 뜻과 중요성의 정확한 표시가 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함께 데리고 간 젊은 청년인 이삭에게 말하였던 때에 발견됩니다.

“경배”라는 단어 역시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첫번째 언급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순종의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약속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집약적인 제사

이 경우에 경배의 행위는 분명히 집약적인 제사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러한 경배의 행위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가히 바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제물,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경배의 행위는 아직도 여전히 커다란, 개인적 희생의 하나일 것입니다.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경배는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실천 - 믿음

경배의 행위는 순종과 믿음의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경배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길을 떠난 삼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한 말을 유의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아의 항복

이삭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사는 목적의 전부를 말살시킴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의 아들이 태어남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어 왔던 모든 것이 이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항복의 실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배하기 위해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속에 거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아끼지 않고 드리게끔 하는 특별한 믿음의 은

사를 내리셨습니다.

시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기록하시니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시키고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궁극적인 제사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후에, 우리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를 제물로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똑같은 장소에서 희생되었다는 뚜렷한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배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모든 개인적 소욕들과 야심들 그리고 계획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양의 효력

사울

> 악신으로 변저함

삼상 16:14~17, 23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를 변저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변저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 음악은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잘”이란 단어는 능숙함을 뜻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나 노래하는 이는 능숙하여야 합니다. 사울의 종들은 기름부음이 있는 음악의 능력을 전에 보았기 때문에, 능숙한 음악가를 찾아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문 제

1. 찬양을 어떻게 이해했고, 찬양의 정의가 무엇인지 당신의 말로 쓰시오.

2. 경배를 어떻게 이해했고, 경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당신의 말로 쓰시오.

2.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을 때, 그의 경배의 행위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2 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

장막 안에서의 묘사되었던 예배

성경 해석의 또 다른 원칙은 “언급한 양의 법칙”입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특정한 주제에 할애된 언급의 양이 그 주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그만치 51 장이 장막에 관한 언급에 할애되어, 우리에게 장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막과 성전에 관한 재검토

구약 속에는 장막과 성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그 차이점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장막

모세의 장막의 모형 혹은 청사진은 하나님께서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장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해 다닐 때 사용되던 천막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장막은 구약시대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임시로 두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셨고,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곳이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법궤는 그들의 적에게 탈취되곤 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실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은 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에 대한 계

획을 주셨고, 다윗은 성전 증축을 위한 자재를 모아 들었습니다.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 블레셋에게서 찾아온 후, 다윗의 장막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첫번째 목표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신약의 예배를 들여 다 볼 수 있는 “창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리창은 전형적인 구약의 천막 혹은 장막으로 틀이 짜여졌으나, 그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문을 감사로, 그 공정을 찬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중간에 가리운 휘장이 있는 지성소가 없었고, 제단에 올리는 단 한 가지 제물은 찬양의 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리창”은 솔로몬의 성전이 중건될 때까지 단지 40 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리창은 단혔고,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송되었고, 짐승의 희생제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장막과 대단히 비슷하게 고안되었습니다. 그곳은 언약궤의 최종 거처로 지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데 쓰는 디딤대를 제거했습니다. 이 성전은 임시 천막이 아닌 대리석과 금으로 만든 영원한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후에, 솔로몬의 성전은 파손 상태에 전락하게끔 허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했을 때, 외국의 왕들이 비싼 공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였을 때,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성전에서 탈취되었

습니다. 성전의 벽, 기둥과 문에 입힌 금을 벗겨 내었습니다. 한 때 르나세는 성전 안에 가짜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고, 성전 뜰 안에 남색 행위를 위한 장소로 헛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말들을 궁전 안에 매어 두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의 값진 것들을 모조리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을 남김없이 다 태워 버렸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이 성전은 기원전 520 년경에 건축되었고, 솔로몬의 성전만큼 웅장하지는 못했어도 더 큰 규모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의 많은 것들이 없어졌고 언약궤도 분실되어 버렸습니다.

헤롯의 성전

헤롯이 유다의 통치를 잡고 있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중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권기간 동안, 헤롯 왕은 건축에 대한 야망으로 웅장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의 취향에 맞을 만큼 굉장한 건축물이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이

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나드셨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모든 제사장들의 임무가 수행되었고,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놓으셨던 곳이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마 21:12~1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에 휘장(실제로 6 인치 두께의 용단이었음)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초자연적으로 찢겨졌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단지 대제사장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배치되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였던 처소였습니다. 휘장이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찢겨진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격리되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음을 명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접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였고, 주후 70 년에 로마군이 무너뜨렸습니다. 성전과 둘러싼 건물들이 완전히 불에 탔고, 불이 났을 때, 금이 녹아 돌과 돌 사이의 간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 그 금을 모두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마 24:2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법궤를 추적하여

법궤는 모세의 장막 속에서 엘리 시대까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삼상 2:30~35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굶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전쟁 도중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갔고, 언약궤가 블레셋 땅 여기 저기 옮겨질 때마다 그들에게 심판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삼상 5:1~4, 6~7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텔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을 한 데 불러 모아 법궤를 어떻게 돌려 보내야 할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소를 모는 이가 없는데다, 송아지로부터 막 떼어 낸 소 두 마리는 본성적으로 송아지 뒤를 따라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 두 마리는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헌신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삼상 6:7~8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다윗은 법궤를 기랏여아림에서 시온 산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법궤를 장막으로 옮기려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을 때 강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상 13:7~8, 10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끌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웃사가 거
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알려지고, 시행되었던 하나님의 절차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적절한 “성전 절차”를 따라야 하겠습니
다.

찬양이 불순종을 숨겨줄 수 없음

다윗과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수레를 사용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으
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나무로 만든 디딤대 위에 얹어서 어깨에 메고 레위
사람들이 옮기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수레로 운반할 수 없었고,
단지 헌신되고, 성별된 사람들이 짊어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였으나, 그
들은 불순종하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함으로써, 법궤는 성공적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상 15:2 다윗은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댈 수 없나니 이
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
이니라.”**

우리가 경배 속에서 여호와와의 임재하심을 소원한다는 이유 만으로 예배를 “우
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매번 그 분의 이
끄심을 따라 여호와와의 임재하심 속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역사
하셨던 똑같은 “수레”가, 똑 같은 노래, 박자, 순서 등이 이번 주일에도 반드시
역사하리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찬양

찬양은 장막 안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시온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
고 부르는 천막 안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법궤를 모세의 장막에 두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다
윗의 남은 여생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법
궤가 다윗의 장막에 거하였다는 점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상 16:1, 4~9, 31, 37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
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
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에 쓰였던 기구들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에 쓰였던 기구들은 많았습니다.

시 150:1~6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짙막한 시편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찬양하는 데 쓰여졌던 여러 가지 악
기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입니

다.

- 나팔
- 비파
- 수금
- 현악
- 통소
- 큰 소리 나는 제금

찬양/경배의 능력

➤ 영광의 구름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운반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찰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대하 5:13~14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교회를 위한 모형

언약궤가 40 년 동안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행 15:16~17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인용하였습니다.

암 9:11~12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예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장막에 속한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형태

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문 제

1. 다윗 시대에 그의 장막은 글자 그대로 천막이었는데, 오늘날 다윗의 장막은 무엇인가?
2. 다윗 왕이 법궤를 처음 옮기려고 시도하였을 때 웃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3. 예배의 모형을 상징함에 있어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다른가?

제 3 과

찬양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 감사를 돌리기에 합당하시기에

시 107:1, 2, 8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시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삼하 22:4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 광대하시기에

시 48:1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시 96:4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시 105: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그 분은 최상의 권세이며, 가장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또 만물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심

눅 10: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69: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찬양하도록 명령하셨음

> 다윗을 통하여

시 149: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이다.

> 바울을 통하여

엡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 요한을 통하여

계 19: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좋은 것이기에

시 92:1~2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베풀이) 좋으니이다.

기쁜 것이기에

시 147: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기쁘도다!)

아름다운 것이기에

시 33:1 너희 의인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로부터 나오는 찬송은 아름답도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두려워 합니다. 왜냐하면 위신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삼하 6:14~16, 21~23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제를 떼어 오니라

여호와와 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제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심

시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차게 되면, 하나님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둘러쌀 수 있습니다.

찬양은 힘을 풀어 놓아 줍.

느 8:10b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 28:7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은 성취를 가져 옵니다

찬양하는 영혼은 여호와와 함께 있음을 즐거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시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받기 전에 찬양이 먼저 와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찬양이 우리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세워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승리를 가져 옵니다

시 18:3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대하 20:21~22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명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심지어 매일 살아나가는 생활 속의 전쟁에서도, 찬양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모든 육체

시 145:21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내 영혼

시 103:1~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시 150: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민족들

시 67:3, 5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 78:4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 79:13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의인

시 140:13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성도

시 145:10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

시 107:1~2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시.

여호와를 두려워(경외)하는 자

시 22: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들릴지어다!

여호와의 종들

시 113: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 134:1 밤에 여호와의 집에 쉰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35:1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라!

모든 그의 천사들

시 148:2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자연

시 148:7~10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왕들과 모든 백성들

시 148:11~13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아침부터 밤까지

시 113:3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종일토록

시 71:8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시 146: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낙망할 때

시 42: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범사에 항상

엡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회중에서

시 22:22, 25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이다.

시 107:32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시 149: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이다.

그의 성소에서

시 150:1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열방 중에서

시 57: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궁정에서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무리 중에서

시 109:30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문 제

1.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드십시오.
3. 여호와를 어느 때 찬양해야 되는가? 성경 구절에서 한 예를 들고 또 여러분의 체험 속에서 한 예를 드십시오.
3. 여러분 스스로나 혹은 다른 이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격려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암기하려고 하는 성경 구절 세 개를 열거하십시오.

제 4 과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 옵니다

찬양은 비의 순환과 흡사합니다

물의 발생 순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찬양을 물의 순환과 흡사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순환을 뜻합니다.

- 지상에 있는 물은 증발하며,
- 공기 중에서 구름을 형성하여,
- 지상에 비가 되어 다시 내립니다.

찬양의 순환

찬양은 그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찬양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옵니다.

- 축복
- 승리
- 성장

암 5:8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 시니라.

암 9:6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증발하게 하사, 그것으로 비를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셔서 그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고자 하십니다.

욥 36:27-28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리라.

사 45:8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찬양이 올라가면 축복이 내려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면, 그는 찬양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 주십니다.

잠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시 67:5~6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 147:7~8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숙 10:1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끊임없는 순환

약 5: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앗을 심는 그 계절에 추수를 거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면 때가 이르게 되고, 여러분은 추수할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기간에 추수를 할 수 없어 길이 참듯이, 시간이 지나야 비로서 추수 곧 축복을 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해가 바다 위에 빛나는 것처럼, 똑같이 인류에게 그의 축복을 비추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심령은 그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축복에 대응해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수증기가 바다 위에 햇볕으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것처럼, 인간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축복의 구름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비로 증류시켜서 땅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나머지 비는 강을 만들어서 바다로 흘러나가며, 최초로 시작되었던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 전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찬양의 효과

하나님의 손을 풀어 놓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게 해 줌

행 16:25~26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땅의 소산이 증가 됨

시 67:5~6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승리가 옴

대하 20:21~22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대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압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건강을 가져옴

잠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빼로 마르게 하느니라.

화평을 가져옴

사 60: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우리를 변화시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같은 영광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고후 3:11, 18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일 3:1~2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

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함

슬픈 얼굴

슬픈 얼굴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느 2:1-2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슬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슬픔)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 하여.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픔이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왕의 면전에 슬픈 안색으로 들어오는 것은 왕을 섬기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뜻할 수 있었습니다.

슬픈 기분에 젖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 오는 것은 모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 오는 것은 그분이 아래와 같이 행하여 주신 일들에 대하여 불만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우리에게 주신 일
- 우리를 위해 하신 일
- 우리에게 공급하신 일
- 우리를 위해 계획해 주신 일

즐거워 하도록 명령하였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 12:7, 11~12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할지니라.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대상 16:10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
로다!

시 33: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눅 1:46~47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과 즐거움이 움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묵상으로부터 옵니다.

렘 15:16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
음의 즐거움이오니.

씨앗을 심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후에야 “기쁨으로 나아가
게” 되어 있습니다.

사 55:10~12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
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
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사탄은 기쁨을 정지시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뒤에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합니까? 사탄은
그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환난과 핍박을 갖고 즉시 옵니다.

만일 우리가 기분이 상해서 우리의 기쁨을 잃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
의 심령에 심어 놓았던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막 4:4, 14~17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
이요.

또 이와 같이 들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
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
박이 떨어지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은 열매를 생산함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 15:10~11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거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히 10:32~34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앞이라.

벧전 4:12~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1~12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요 16: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쁨은 힘을 얻게 함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 그의 힘을 받게 됩니다.

느 8:10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악한 자를 이겨 냄

즐거워하는 것이 “악한 자(사단)”를 이겨 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또 그의 말씀의 씨앗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강해지며,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일 2:13~14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앞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기쁨은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줌

만일에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훔쳐갔고, 또 말씀의 씨앗과 우리의 산업과 승리를 빼앗아 갔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전에서 기쁨으로 소리를 높이고 찬양의 제

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포로는 돌아오고 사단은 훔쳐갔던 것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렘 33:9~11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일곱 갑절로 되돌려 주심에 틀림이 없음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는 도적(사단)에게 그가 훔쳐 갔던 것 전부의 일곱 갑절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잠 6:30~31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우리 다같이 지금 당장 기뻐하십시오!

문 제

1. 찬양이 물의 발생 순환과 어떻게 비슷한가를 설명하십시오.
2. 찬양의 효과 두 가지를 열거하십시오.
3. “여호와 안에서의 기쁨”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명시하십시오.

제 5 과

찬양에 관한 성경적 어휘들

구약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어휘들

구약에는 찬양을 묘사하는데 수 많은 다른, 특징 있는 히브리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어휘들에 대한 공부는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더 분명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 어휘들은 훨씬 더한 흥분과 행동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할랄(Halal)

할랄은 찬양으로 가장 흔히 번역되는 어휘입니다. 구약에 160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 구경거리로 만들다

시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자랑 삼아 보이다

시 102:18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축하하다

시 35:18 내가 너희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격찬하다

시 107:32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 자랑으로 여기다

시 64:10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 광채를 발하다

욥 41:18 그것이 제채기를 한즉 광채가 발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은 분명하고도 특징이 있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의

도한 바를 나타냄에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찬양은 여호와를 축하하며, 자랑으로 여기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하 20:21~22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테힐라(Tehillah) - 할랄의 파생어

‘테힐라’라는 어휘의 강조점은 ‘노래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57 번 언급되었습니다.

> 정확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

하나님에게 정확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 119:17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발할지니이다.

> 노래로 하나님을 축하하다

합 3:3 하나님이 드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 자랑하다

우리는 말과 음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 10:21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지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샤박(Shabach)

> 큰 소리로 외침

시 63:3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 승리의 외침

단 2:23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 승리로 기뻐하다

시 117: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이다!

찬양은 반드시 요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품을 지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어쩔 수 없이 적절한 방법일 경우에는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시 47: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마(Zamar)

자마의 뜻은:

- 현악기를 통기거나 연주하다
- 또한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찬양을 노래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음

시 108:1~3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야다(Yadah)

야다의 뜻은:

- 감사의 고백을 하다.

시 109:30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올려서 감사를 드리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함

시 33: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 순복함

대하 7:3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타우다(Towdah)

타우다는 야다(Yadah)와 같은 어원에서 유래되었고, 그 뜻은:

- 존경과 감사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들

시 42:4 내가 전에 생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 존경을 표하기 위한 제사

시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락(Barak)

바락의 뜻은:

- 경애심으로 무릎을 꿇다

시 95:6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떤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을 표시하며, 또 그 대상에게 그가 우월한 가치와 처지에 놓임을 실지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카(Shachah)

경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여러 개 있는 반면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표현한 히브리어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 고개 숙여 절하다

사카는 경배와 찬송 중,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숙여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을 직접 굽히지 않았을지라도 심령의 태도를 또한 표현할 때 쓰여 집니다.

시 95:6a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히브리 어원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살펴봄

육체적인 표현

찬양은 영적 태도, 즉 하나님과 그의 광대하심에 대한 계시에 대해 심령 안에서 나오는 내적 반응을 육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종 육체적인 동작이 따릅니다. - 찬양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입니다. 찬양은 자랑 삼아 보이고,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며, 자랑으로 여기고, 악기를 연주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이 되려면, 눈에 띄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대로 표현함

찬양의 대부분은 성대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묘사하자면; 찬양을 정확한 노래로 부름, 맑은 소리를 냄, 자랑함, 노래함, 큰 소리로 외침, 승리의 함성을 지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림입니다.

감정적 발산

찬양은 감정의 발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정의 운동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정적 발산을 초래할 것입니다.

감정은 반드시 세속적이거나 육에 속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 감정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축하함, 자랑으로 여김과 크게 고함 질러서 표현함들은 감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경의감

찬양은 경의의 자세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경의감은 어떤 이에게 알맞는 존경과 평가를 드림을 의미합니다.

찬양의 행위가 어느 특정한 집회 장소에서 성령의 흐름과 기름부으심의 영역을 벗어나 지나치게 퇴조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즐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의감의 표현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히브리어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우리는 그 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감정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찬양이 단순한 육의 즐거움만이 되고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약에서 찬양과 경배로 번역된 어휘들

신약에서 찬양을 서술하는 데에 여러 가지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어휘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고, 표현적이 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네오(Aineo)

> 찬양드림 혹은 축하함

롬 15:11 또, “모든 열방들이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아 저를 찬송하라!”

> 감사함으로 목소리를 높임

눅 19:37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에파이네오(Epaineo)

> 칭찬하다

벧전 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 찬미하다

엡 1: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유로게오(Eulogeo)

> 찬사를 보내다

눅 1:64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독사(Doxa)

> 영광스러운

Doxa 는 육체적인 표현보다는 경배로 인해 생겨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요 9:24a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프로스큐네오(Proskuneo)

> 절하다

Proskuneo 는 존경의 뜻으로 땅에 엎드림을 뜻함

마 2:2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찬양과 경배 용어의 정의

시편(Psalms)

시편은 헬라어 *Psalmos*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노래를 부르도록 지은 시”를 뜻합니다.

Psalmos

Psalmos 는 음악의 반주를 겸한 시편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수금과 같은 현악기를 손으로 때리거나 통기는 것”을 뜻합니다.

찬미(Hymn)

찬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뜻하는 헬라어 *humnas* 에서 온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노래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humneo*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령한 노래

헬라어 *Pneumatikos ode* (신령한 노래)는 “가사를 갖고 있는 즉흥적 노래이며 또 성령께서 그때 그때에 맞게 주신 곡조입니다.”

문 제

1. 구약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두 개의 어휘를 열거하고, 히브리어의 원 뜻을 밝히십시오.
2. 신약에서 나오는 찬양의 두 어휘를 열거하십시오. 희랍어에서 유래된 그 뜻을 밝히십시오.
3.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여진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4. 경배로 번역되었던 헬라어 2 개의 뜻을 밝히십시오.

제 6 과

찬양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는 경배와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바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아들과 딸들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노래를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노래를 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습 3:17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쓰여진 히브리 어휘는 “기쁨에 넘쳐 환호하면서 빙글 빙글 돌며, 필쩍 필쩍 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쁨에 넘쳐 환호하면서 필쩍 필쩍 뛰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전율느끼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영원성으로 돌아가, 천사들이 하던 경배와 찬양의 임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음을 받았음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천사들을 지으셨습 다. 천사들의 무리는 세 천사장의 지도력 아래서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천사장 미가엘은 거대한 전사 천사들(Warrior Angels)의 지도력을 맡았습니다.
- 가브리엘 천사는 사자 천사들(Messenger Angels)의 지도력을 맡았습니다.
- 루시퍼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특별히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도록 지음을 받은 천사들의 지도력을 맡았습니다.

루시퍼

>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

하나님께서서는 루시퍼 천사를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덮는 그룹(Cherub)으로 지으셨습니다.

겔 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룹들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그 날개로 덮었던 것과 같이, 루시퍼 역시 “덮는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었습니다.

> 이름의 의미

히브리 말로 루시퍼는 “헤이렐(heylel)”입니다. “할랄(halal)”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할렐루야(hallelujah)”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찬양하다, 밝다, 빛나다, 찬란하다, 송축하다, 영광을 돌리다, 유명하다 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그의 주요 임무가 찬양과 경배였다는 훌륭한 암시를 보여줍니다.

루시퍼는 “할렐루야(=여호와를 찬양하라!)”의 원조였습니다.

여호와와 반영과 빛 그리고 그의 영광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송축했던 찬양가의 원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가 진술한 바에 대해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사 14:11a, 12a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여,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 음악을 위해 지어졌음

겔 28:13b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tambourine)와 비파(pipes, horns/flutes)가 예비되었도다.

루시퍼는 그저 악기를 연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기 자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타악기, 플룻, 관악기와 합창을 갖춘 한 오케스트라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루시퍼는 무수한 보석으로 단장하여서, 그가 움직이고 숨을 쉴 때마다 빛과 하늘나라 소리면에서 끊임없이 항상 변하는 영광의 광경이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종류의 악기들 - 타악기, 관악기와 현악기가 모두 다 언급된 것을 유의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은 것은 찬양과 경배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퍼는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로 웅장한 천사들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루시퍼는 공백을 남겼음

하늘 나라에서 루시퍼의 타락은 큼직한 공백을 남겼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 반역을 일으켰고,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수하에 있던 천사들” 즉 그와 함께 반역했던 하늘의 별들(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같이 쫓겨났습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겔 28:15~16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계 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 12:4a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루시퍼와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수하의 삼분의 일의 모든 천사들이 쫓겨나자, 하늘에는 홀연히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공백을 채우셨음

하나님께서서는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남겼던 공백을 채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 나라에서 쫓겨나왔던 루시퍼(사단)와 그의 천사들(악령들) 위에 이 땅에서

지배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이 지상에서 사단의 패배를 시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에게 가깝도록 지으셨고, 그의 보좌 위에서 자신과 함께 다스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공백은 이제 그의 교회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엡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인 모든 남녀로 구성된 교회가 그 덮는 그룹과 그의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가장 위대한 목적과 기능 -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는 것 때문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엡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단과 음악

루시퍼는 음악 지휘자였음

타락하기 전, 루시퍼는 하늘에서 음악 지휘자였습니다.

겔 28:13b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의 음악적인 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졌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였을 때, 이 은사도 변질되었습니다.

악기들이 창안됨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과 전쟁에 쓰일 기구들을 양쪽 다 창안해 냈습니다.

창 4:21~22a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쉴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나는 나아마이였더라.

음악에서의 혼란

사탄은 혼란의 저자입니다. 음악에서의 혼란은 그것이 사단에서 온 것이라는 표적입니다.

고전 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 금 송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였을 때,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혼란을 일으킨 나머지, 처음에는 그 취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 32:17~18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돌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 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 금 신상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세워 놓은 금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사용했습니다.

단 3:5-7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앞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앞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앞드리 절하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요한은 오늘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또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굉장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대부분은 찬양과 경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찬양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 4:8-11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십 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 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보았나이다.”

그 수가 천 천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천사들과 생물들이 무려 억만이 넘게 있습니다.

계 5:11-14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

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전체 경배

지금 하늘에서는 전체적인 경배와 찬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 천의 천사들에 의한 경배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 7:9~10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새 노래

계 14:1~3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질지이다.

미래에 있을 경배

요한은 사단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 15:2~4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 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계 19:1, 3, 7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자신을 예비하는 것은 이제 그의 신부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문 제

1. 하늘에서 경배를 인도하도록 누가 지음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대답을 설명하십시오.
2. 전 예배 인도자의 공백을 누가 메꾸었습니까? 설명하십시오.
3. 모든 음악이 하나님께로 영감을 받은 것입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 7 과

음악 - 예배의 표현

악기들

악기는 찬양과 경배를 표현하는 데 빈번하게 쓰여집니다.

다윗에 의하여

시 150:3~5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신들의 악기로 찬양을 드리려는 음악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탁월한 솜씨를 기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시 33: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기교일 것입니다. 기교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느낌과 흐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공교히 연주할 때, 사울에게서 악신을 쫓아냈고, 그에게 상패함과 고침을 갖다 주었습니다.

삼상 16:23 하나님께서 무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사장들에 의하여

대상 23:5 사 천은 문지기요, 사 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하늘에서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성령께서 음악의 영감을 주십니다

기쁨부음을 풀어 주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덕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왕하 3:15~16a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 의 말씀이...

자유함의 표현

> 포로로 잡혀 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 그들의 음악은 중단되었습니다.

시 137:1~4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

> 자유함에서

70 년 후,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그들은 기쁜 노래와 웃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시 126:1~3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구약에서 찬양과 경배에 쓰였던 음악

최초의 언급

창 4:21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Yubal) 혹은 Jubal(히브리)이라는 이름은 시냇물처럼 보기 좋게 흘러나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노래하였습니다.

출 15:1~2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미리암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도 여호와를 위한 모세의 노래에 화답하였습니다.

출 15:20~21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로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 던지셨음이다!”

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로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민 21:17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 몰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드보라와 바락

삿 5:1~3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 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삼상 18:6~7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시 7:17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 13: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다.

시 21: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제사장들

4 천명의 레위 사람들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대상 15:16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며.

대상 23:5 사 천은 문지기요, 사 천은 “다윗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대하 30: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칠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신약에서 찬양과 경배에 쓰이는 음악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 26:30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바울

바울은 교회에게 기쁨부음이 있는 노래를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리라.

엡 5:19-20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Hymns)

찬미는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신령한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이란 성령께서 직접 주신 노래들이며, 성령께서 가사와 곡조를 다 즉흥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대로 부르게 됩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언어일 수 있고,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

찬양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효과를 노리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사람에게 맞추어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기뻐하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찬양의 영적인 표현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

대상 16:9 그에게 노래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시 71:23~24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 여호와에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높이십시오.
- 그분을 찬양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 말로써 또 노래로써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 찬양하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시 40:16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시 66:8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전체 사람에게 힘을 얻도록 섬겨 주는 긍정적 감정의 건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침

말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시 47: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사 12:6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삼상 4:5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눅 19:37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문 제

1. 찬양에 쓰이고 있는 악기의 성경적인 예를 드십시오.
2. 예언하도록 기름부음을 풀어놓아 주는 음악이 성경적 예를 드십시오.
3. 구약에서 찬양과 경배에 쓰이고 있던 음악의 예를 드십시오.
4. 신약에서 찬양과 경배에 쓰이고 있는 음악의 예를 드십시오.

제 8 과

찬양의 육체적 표현

주의: 찬양의 육체적 표현들을 하나 하나 표현해 보는데 가장 효과적인 노래들을 이 과 시작하기 앞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육체적 표현들을 공부한 후, 높은 차원의 찬양과 친밀한 경배 중 특별한 표현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성경적 표현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중에 어떻게 임하실지 너무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찬양의 육체적 표현들

기립함

기립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대하 20:19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계 7:9-10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시 33: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이다.

시 135:1-2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손뼉을 치

손뼉을 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며, 찬성하는 표현입니다.

시 47: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이다.

사 55: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행진함

행진하는 것은 이겨 놓은 승리의 육체적 표현입니다. 명하신 대로, 여리고 주위를 행진한 것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 왔습니다.

수 6:2-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 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함께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군대로 묘사됩니다.

아 6:4, 10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춤 춤

춤을 추는 것은 찬양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느 다른 형태중에 가장 표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분 앞에서 온 힘을 다

해 춤을 출 때, 자아 의식과 자아 억제로부터 완전하고도 철저히 풀려 나오게 됩니다.

시 149:3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삼하 6:14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는 이 과의 마지막 부분에서 춤추는 것에 대해 더 공부할까 합니다.

웃음

여호와 안에서만 있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웃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한 웃음(Holy Laughter)이 있는 동안, 자주 굉장한 치유와 자유함이 옵니다. 진정한 웃음은 내적 기쁨의 나타남입니다.

시 126: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였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욥 8:20~21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경배의 육체적 표현들

두 손을 높이 듦

자연적인 영역에서, 두 손을 드는 것은 행복의 표시입니다. 예배에서는 희생 제사와 행복의 표시가 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시 143: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42:1~2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시 134:2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63:4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나의 기도와 간구의 육체적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시 28:2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딤펢전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음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 것은 경의와 존경의 태도입니다.

시 95: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엎드림

마루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으로 향하는 것은 가장 깊은 존경과 경배, 절대적인 경의, 자아의 완전한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상 18: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 하니

대상 29:20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엎드렸고(절하고)

침묵

침묵이 찬양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전 3: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시 46:1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눈물을 흘림

눈물을 흘리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연민의 정을 체험할 때의 반응입니다.

행 20:36~37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찬양과 함께 오는 눈물은 억제하기 힘든 감사와 경애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눈물은 깊은 감정적인 자유함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눅 7:37~38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은 흔히 대단한 기쁨과 승리에 앞서서 옵니다.

시 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춤

춤은 찬양의 다른 표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많은 다른 형태보다 더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에,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

춤은 아주 표현적인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 전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춤”으로 번역된 헬라어와 히브리 단어의 뜻은 “뛰다, 강충 강충 뛰다, 발을 높이 치켜 들다, 높이 뛰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고, 틀에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행 3: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시 149:3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

축하하는 경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해방될 때, 구원과 자유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출 15: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언약궤를 다시 찾았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삼하 6:14 (그 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영으로 추는 춤

영으로 추는 춤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소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스타일이며, 강충 강충 뛰거나, 빙빙 돌거나, 뛰어가거나, 높이 뛰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추는 춤은 때때로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이나 노래에 맞추어 추게 됩니다.

시 149:3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 혼자서나 혹은 단체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영의 춤은 이성의 짝과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렘 31:13a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 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 하리니...

> 연령에 제한이 없음

영으로 추는 춤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과 노인”이라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노래와 춤

노래와 춤은 종종 함께 갑니다.

삼상 29:5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춤출 때

춤을 출 만한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전 3: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

여호와 앞에 춤을 춤

이 찬양의 표현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 ‘우리가 춤으로 찬양해야 한다’ - 에 대한 순종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춤을 출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의지의 작동으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영으로 춤을 춤

영으로 춤을 추는 것은 우리의 전 육신이 완전히 성령의 주장하심에 놓이게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히며”, 너무도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이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춤은 항상 하나님의 완벽한 때(timing)에 일어날 것이기에 주위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회복을 예언하였음

춤의 회복이 예언되었습니다.

렘 31:4, 13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 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 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 임이니라.

만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일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경고

육적인 춤을 삼가십시오.

육적인 춤은 역시 타락, 이상승배, 성적 문란과 세속적인 생활과 연관됩니다. 사단은 모든 것에 대한 모조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진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의 목적을 절대로 “보여주기 위함”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춤추는 사람에게 끌도록 하는 공연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에, 춤은 성

도의 전 회중이 가담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즉흥적이고 강렬한 찬양의 육체적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과 남자들, 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렘 31:13a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 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 하리니...

성도들은 찬양하는 것을 중단해서도 안 되며, “참관인”이 되어도 안 됩니다. 또는 “영으로 춤을 추는 때”나 혹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때”에 어떤 식으로든지 열성적인 찬양에서 주위가 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춤이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단지 뽑힌 소수의 몇 명만이 공연하는 “공연물”이 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춤이 전체 인간 - 영, 혼, 육 - 과 관련된 찬양의 자유스러운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경고가 요합니다. 우리의 의상과 행동은 항상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가함

성령께서 여호와 앞에 춤추도록 역사하실 때, 믿는 자가 춤추며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자아 의식과 자신의 위신을 잃어 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은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혹은 성령의 흐름을 꺼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각 자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 죽고, 성령께 순종하여 다윗이 행했던 것 - “여호와 앞에서 전력을 다해서 춤을 추며” - 처럼 행하며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성도의 전 회중에 임하면서 가장 “급격한 돌파(breakthroughs)”가 일어납니다.

문 제

1. 경의와 존경의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찬양의 세 가지 육체적 표현을 명기하십시오.
2. 다윗의 장막에 부가해서, 예배의 어떠한 육체적 표현이 교회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3. 어떠한 찬양의 육체적 표현을 당신은 가장 불편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특별한 면에 입각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 9 과

찬양의 방해 요소들

찬양과 경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무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믿는 자 각 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알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방해물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병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내거는 핑계들

“나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수줍고; 나는 너무 남을 의식합니다!”

“나는 남에게 드러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로 나온 명령입니다. 근거가 확실한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시 150: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찬양의 방해 요소들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귄과 의사소통을 차단시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시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 해결책

그 대답은 우리의 죄나 죄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정죄

정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무가치한 감정 -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떨구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 우리 자신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 해결책

롬 8:1, 3a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 여러분의 생각들을 벗어 버리고, 예수님께로 넘기십시오.
-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 질 것입니다.

히 12:1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것들에 중점을 두게 합니다.

예배 도중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체면”이나 “격식을 차리는 것”에 더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 해결책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 이니라.

빌립보 4: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 이것들을 생각하라.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관심

여호와를 향한 미지근한 태도나, 무관심이 종종 어떤 이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 해결책

충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뒤에 순종의 실천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말 3:7a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반항심

하나님께서나 부모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찬양에 주요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삼상 15:22~23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 해결책

권위에 순종하고 또 당신의 반항심을 회개하십시오.

히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낙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여호와를 찬양할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후 4:8, 9b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 썸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뺨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

뿌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해결책**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찬양과 경배의 순종을 시작하면, 모든 낙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사 51:11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성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이들이나, 우리 자신 또는 하나님께 대한 성냄을 간직한 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 1:19-20b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 **해결책**

당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당신이 심령 안에 성냄이 머무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엡 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근심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의 한 표시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근심으로 차 있게 된다면 찬양과 경배에 전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해결책**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들에 집중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은 평안으로 넘쳐 흐르고 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울증

우리 주위 상황 때문에, 우울증의 영으로 우리 자신이 압도되게끔 허락한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찬양의 흐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벧전 4:12~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 해결책

찬양의 제사로, 우리는 기뻐하기 시작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천으로, 우리는 찬양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에 관한 잘못된 개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심판하시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 해결책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개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1~32, 38~39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종교적인 배경

종교는 억누르나, 구속은 해방시켜 줍니다.

마 15:6b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 **해결책**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전통을 면밀하게 파헤쳐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만

교만이란 자신의 모습이 좋게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교만은 사람과 자아를 하나님 대신에 보좌 위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 정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교만한 종교적 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마 23:1~2, 5~7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 **해결책**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마 23:11~12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을 두려워 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두려움은 일종의 묶임의 형태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로 막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은 근심과 염려를 초래하고,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에게서 -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데서 - 우리의 시선을 떼어 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그것은 믿음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잠 29: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라.

▶ 해결책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그 분의 올바른 위치에 모시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분 그대로 알기 시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놀림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는 모든 찬양이 자신에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단은 주위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해결책

무겁게 눌러 있을 때의 해결책은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데 있습니다.

막 16:17a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지

많은 영역에서, 성도들의 생활에서의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왔습니다.

▶ 해결책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관해서 기록하셨던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실천하십시오! 거부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 도중 “육으로” 찬양과 경배하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거부 반응을 보였고, 또 이들의 지나친 점 때문

에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양과 경배의 모든 성경적인 표현들 속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 해결책

다른 이에게 거부 반응을 갖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필요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지적 순종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그에게 계속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한받고 있는 것이며, 종교적인 전통과 사람의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성령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론

찬양과 경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직하게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여전히 전념할 수 없다면, 성숙한 성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문 제

1. 찬양의 한 가지 방해 요소를 명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해답을 쓰십시오.
2. 당신의 자신의 생활에서 느꼈던 찬양의 한 가지 방해 요소를 명기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혹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적으십시오.
3. 만일 당신의 모든 노력이 찬양의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10 과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림

찬양과 찬양의 희생 제사와의 차이점

히 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찬양의 희생 제사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찬양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쉽게 흘러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저절로 흘러 나옵니다.

찬양의 희생 제사

찬양의 희생 제사는 일들이 잘못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 일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하여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희생 제사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 제사는 계속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이다.

귀에 들리는

찬양의 희생은 귀에 들리는 찬양이라야 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내 전심으로 또 음성으로 송축하리라.”**

바울과 실라 - 예

수감중인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행 16:22-26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 육체적 조건

그들은 공격을 받았고,毘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겼고

그들은 매를 맞았으며,

가장 저질의 범죄자들과 함께 깊은 옥중에 던져졌으며,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가 채워졌음.

➤ 영적 조건

그들은 기도하였고, 찬미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드렸고, 그 밖의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 결과

그들의 착고는 풀렸고, 그 뒤 석방되었습니다.

간수장과 그의 모든 “권속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예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던 다른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호사밧 - 다른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이름, 여호(Jehos)는 “여호와가 통치 하신다”는 뜻입니다.

➤ 사람들에게 말씀 올림

대하 17:3-6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 환난의 시기에 기도하였음

다 년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건드리지 않았으나, 그들은 연합하여 그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회중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하 20:6~9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제양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은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대하 20:15~18 야하시엘이 가로되, “본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 모두들 경배하였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음

전쟁을 준비함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찬양을 노래할 만한 남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남자들을 군대의 선두에 세웠습니다!

21~22 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 승리

23 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24~26 절 유다 사람들이 들 땅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많이 있는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 사 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요약

➤ 육체적 조건

그들은 세 나라의 큰 무리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 영적인 조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이 패배 당한 후가 아니라, 적군이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소망이 없어 보였던 상황에서 중에 말입니다. 그들은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 그 결과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적군들이 서로 서로 죽었고, 그들은 엄청난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 승리로 가는 단계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로 가는 5 단계를 발견합니다.

-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분을 경배하라
- 믿음으로 행하라: 승리가 확연히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속에 영적 싸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인 표현들 중에, 위대한 영적 권세와 능력이 종종 풀려 나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방금 공부하였던 바울과 실라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난 후, 자유함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왔습니다.

찬양은 승리에 앞장서게 됨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찬양을 노래할 남자들을 택하였고, 그들이 군대의 선두에서 전진하였을 때, 크나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였을 때, 위대한 능력과 영적 권세가 풀려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였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노래를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 149:6~9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날 가진 예리한 칼을 우리의 입으로 말할 때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할 때 영계에서 위대한 승리를 또한 거두게 됩니다.

사 30:30~32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험격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와 목소리에 맞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맞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찬양의 음악은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배 - 예언 - 전쟁

계 19:6~8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 경배

오늘날 찬양과 경배의 새로운 곡조가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종종 강력하게 부딪히는 물처럼 떠들썩한 소리로 또 우뢰같이 시끄러운 표현과 승리의 큰 함성으로 옵니다. 외치는 함성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종전에 계시되었던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 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단이 이 지상에서 묶이게 될 때의 최종적 전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계 19:10-11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크나큰 영적 전쟁에서 3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 경배
- 예언
- 전쟁

➤ 예언

흔히 찬양과 경배 도중에 “예언의 영”은 영적 전쟁의 “신령한 노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영의 세계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 정사와
- 권세들
-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을 묶어 버립니다.

시 149:8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 전쟁

계속해서 계시록 19 장은 마귀와 그의 악령들의 세력을 짓누르며 이 위대한 승리(triumph)를 확인하는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계 19:12-16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바쳐진 찬양의 희생

찬양의 희생 제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히 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엡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지 충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옴

찬양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의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결심을 할 것

항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미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지금 곧 시작하십시오

매일 - 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만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 당신이 결심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 찬양의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 가십시오.
- 어려울 때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재난의 시기에 찬양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그 분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으로 그 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의 희생 제사를 바치게 되는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방법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든 또 그가 행하신 모든 바를 인하여, 그 분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실 것으로 인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분을 찬양하며, 그 분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찬양의 희생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 계속해서. 승리와 구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의 상황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상황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그분의 능력과 그의 약속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찬양의 영이 의심과 근심을 대치하게 됩니다.

흔히 찬양하기가 어렵게 보일 때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찬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압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의 희생 제사로 여러분의 영을 계속해서 풀어 놓으면, 얼마안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풍성한 차원으로 들어가 즐거워 하는 자신을 받

견하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 그 분 앞에서 춤을 추십시오.
- 그 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찬미하십시오.
- 그러면 그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과 자유함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문 제

1. 하나님을 찬양함과 찬양의 희생을 드림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찬양자들을 군대의 선두에 세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까?

제 11 과

찬양에 관한 우리의 제사장적 역할

서론

지상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행 13:1~3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이 근본적인 사역을 흘려버릴 때, 다른 사역들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는 병든 자들과 악령들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립되어 외로운 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상담 사역이 감정 문제와 결혼 문제,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 반항하는 젊은이들, 학대 받는 아이들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의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혼, 간음, 우상 숭배, 성도착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몸된 교회가 경배와 찬양의 원래 사역으로 복귀할 때, 이 모든 기타 사역들이 줄어들고, 줄어들어 최소화되지 않을까요? 한 모임이 여러 번에 걸쳐 진정한 찬양과 경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 받으며, 사로잡힌바 된 것에서 풀려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꼭 같이, 우리도 그의 제사장직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계 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모형에서 나타납니다. 후에 다윗 왕의 제사장적 사역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둘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분을 통해서 또는 그 분 휘하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계속적인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살렘의(오늘날 예루살렘의 위치) 왕이요 - 제사장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과는 대조적으로 멜기세덱은 기록된 족보가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시 110: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으실 왕같은 왕 - 제사장으로 계시합니다.

히 7:1-3, 17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다가 가다”는 뜻입니다.

히 7: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다윗: 왕/ 제사장

다윗은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장막을 설치했고, 법궤를 도로 찾아 왔고, 또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찬양과 경배로 인도할 때,

사실 그는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약 4: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으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직 - 아론

아론은 첫번째 대 제사장으로 지명 되었고, 또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은 족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레 21:17, 21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완전함이 요구 되었음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상징 혹은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셨고, 또 언제나 완전 무결하심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복

제사장들의 옷차림은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해 특출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제사장 옷의 각 부분,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예복은 4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세마포로 된 바지
- 솔기가 없는 한 쪽으로 된 긴 옷
- 네가지 색으로 된 허리띠
- 세마포로 된 머리 장식

세마포는 항상 의로움을 상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직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직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땀은 저주와 자기 노력의 상징입니다. 모직은 절대로 철저히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부음

그런 뒤에 제사장들은 기름(성령의 상징)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 - 제사장들은 그들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의 설명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함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했습니다.

레 6:9, 13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속에 있는 불에 부채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딤후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불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타도록 유지해야 함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재를 비우게 함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재를 깨끗이 비워야 했습니다.

레 6:10-11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 갈 것이요

만일 재가 계속해서 누적되도록 방치하면, 불이 계속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빛나고, 안이한 “불”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오늘 현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에 대해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들에 의해 질식되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의 한 복판에 있고,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기꺼이 떠나려고 해야 함

니다.

빌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제물을 드림

오직 제사장만이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출 29:38-39, 42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우리는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축복함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 9: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펼하고 내려오니라.

민 6:23-27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 5:13a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

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았음

제사장들은 항상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대상 16:29 여호와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출 23: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빱 월의 정한 때에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출 34: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 16: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림

아론 계열 제사장들의 역할 중의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영적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벧전 2: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히 13:15 이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찬양을 노래로, 기쁨으로 표현하며 찬양과 경배와 찬송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필수 조건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4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됨

제사장의 지위는 성별 혹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출 19:22 또 여호와께 가까이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들격할까 하노라.

거룩함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하고, 여호와를 향해 완전히 성결되어야 합니다.

민 16:5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위임 되었음

제사장들의 사역과 역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였고, 또 백성들은 아래와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 세상에 속한 다른 자들로부터 구별 되어야
-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의 나라

출 19:4-6a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씻음

제사장들은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 40:12-13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 야곱의 가족

야곱은 그의 환난 날에 여호와와 의 낮을 구하기 앞서 그의 집안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정결케 되도록 하는 일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창 35:2-3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백성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출 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오늘날 성도-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찬양을 드리려 오기 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깨끗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엡 5:25-27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제사장의 임명을 받았으나, 그들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의 임재로 들어 갔습니다.

레 10:1~3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은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명예와 특권이 되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을 요하게 됩니다.

성도-제사장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위가 산만한 태도나 불순종 혹은 우리의 방법대로 찬양하겠다는 소욕이나 혹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견본과 가르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전통에 따라 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였던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불”로 대표되는 이 세상과 다른 종교들의 노래들, 음악, 관습들이 우리의 예배에 슬쩍 끼어 들어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1. 베드로전서 2 장 5 절과 히브리서 13 장 15 절에 의하면 우리는 성도-제사장들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사들은 무엇입니까?
2.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물로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 정결하도록 해야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9 절과 에베소서 5:25-27 절에 의하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까?
3. 나답과 아비후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배웠습니까?

제 12 과

제사장으로서의 삶

찬양과 경배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제사장들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예물에 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렘전 2:5, 9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직분을 위해 선택됨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 7:15~17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 8:1~2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주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출 19:6a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변하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의 제사장 직분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 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함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엡 4: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거룩한 백성

히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벧전 1:15~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끗한 양심

경배에 관한 요구 사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분명한 것들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떳떳하게 그의 임재하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시 86:11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모든 생각을 한데 모아 경배하는데 집중시킨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모욕이 됩니다!

약 4:8, 10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정결한 마음

시 24:3~4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동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드립니다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의 응답을 얻기 위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상한 심령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혼련과 순종을 배워서 생겨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심령입니다.

더욱 두려워 함

시 89:7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 됨

골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제사장의 옷

구원으로 옷 입음

히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찬양의 옷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찬양의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은 깊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우리는 영적으로 성도-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옷은 영적인 것입니다.

> 의의 세마포

계 7: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물

감사함/찬양

구약의 제사장들의 목적과 역할의 대부분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도-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뚜렷하고, 분명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 그 분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100: 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소유물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 분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 3:9-10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자신

우리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롬 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찬양의 희생 제사

히 13:15~16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희생 제사”라는 말은 언제나 안이하거나, 편리할 때만 드리는 것을 말함이 아

닙니다. 그것은 항상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아니면 전통을 붙드십시오

매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일에 봉착합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평소 행해오던 우리의 전통을 붙들든지?

벧전 2: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 가십시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매일 모세의 장막으로, 그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그 분의 임재하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궁정으로 인도하는 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 갔습니다. 일 년에 한번 대제사장은 언약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들어 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대응하는 지상의 것이었습니다. 속죄소로 덮여 있는 언약 법궤는 하나님 보좌의 모형으로 지상에 있는 장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격리시켰던 물리적인 휘장이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초자연적으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절차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따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단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 문을 통하여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들어가는 것”은 순종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첫번째 노래들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둘러친 자연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 갑니다.

> 궁정

...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궁정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 궁정에서 찬양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황홀한 경배의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는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 성소

...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찬양의 궁정”에서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가까이 이끌림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해서 완전히 압도 됩니다. 우리는 더 차원이 높은 형태의 찬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안 뜰을 통해서 성소에 있는 우리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감지한 나머지, 황홀한 경외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음악의 속도는 느리게 되거나 혹은 멈추게 됩니다. 조금 전 “질서있게” 보였던 것이 갑자기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하심이 거의 압도할 정도로 뒤덮게 됩니다.

> 지성소

때때로, 눈물이 우리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음악과 노래를 중단한 채 그저 그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만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긴 채로 서있거나, 무릎을 꿇고, 심지어 때때로 그 분의 임재 안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게 됩니다.

거의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의 예를 봅니다.

왕상 8:10~11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니면 전통을 붙들든가

그들만의 전통을 가진 교회 내 많은 이들, 곧 찬송가책에서 노래를 골라 부드

럽고, 무겁게 불러 왔던 이들은 찬양할 때 표현적이 되는 것에 대해 웬지 어색함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표현적이 되는 것이 자신들과 “맞지(fitting)”않는다고 느낍니다. 다윗이 기록하기를,

시 33:1(NIV)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fitting) 바로다.

시 147:1(NIV)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fitting).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이한 전통의 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진심 전력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표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고 기뻐하고, 손뼉 치며, 소리 지르며, 심지어 춤을 추라고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익은 우리의 것입니다!

문 제

1. 구약의 제사장들은 분명한 옷을 입었습니다. 신약 시대 제사장의 “옷”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2.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찬양과 경배하며 경험해야 할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제 13 과

찬양과 경배를 통한 승리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써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죽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공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허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5 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던 날과 똑 같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고 열린 채 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그 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고, 또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휘장 안으로 옮겨짐

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위해 성소

에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우슬초를, 다른 한 손에는 피를 담은 대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휘장은 벽에서부터 벽까지 천장에서 마룻바닥까지 드리워, 쳐져 있었습니다. 밑으로 기어들어가거나, 넘나들거나, 돌아서 들어갈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히 9: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 갔을 때, 그는 전적으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들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휘장 안, 신령으로 옮겨지는 것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시냇가에서 홀연히 성령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아소도로 옮겨간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경배(=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으로 예배(=경배)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뭇거리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윗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소원들이 이루어 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손을 구해왔습니까?

빈번히,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 안에 들어 갑니다. 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느낄 때, 많은 이들이 방언과 방언통역과 예언을 말하기 위해 “바깥 뜰”로 다시 나가야 하는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금방 강한 기름 부으심이 떠났고, 사람들을 자리에 앉도록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프로그램 절차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서 계신 채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와서 자신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됨

궁정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 동안, 급격한 돌파(breakthrough)가 영에서 일어 납니다. 종교적인 전통의 껍질들과 영적인 무관심이 떨어져 나갑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우리의 심령의 모양이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워 지고, 따뜻해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오도록 붙잡아 주는 친밀한 경배가 계속 연장되는 동안, 부드러운 진흙이 틀 속으로 밀어넣어 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경배의 제단을 쌓아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개인들과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반복, 반복해서 찬양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희생 제사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아니면 몇몇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영적인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 - 모리아 산

우리가 1 과를 공부했던 바와 같이, “경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갔을 때입니다.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경배에 관한 이 “첫 언급”을 통해 우리는 경배라는 것이 강한 희생 제사를 요구하는 순종의 실천임을 배웁니다!

경배에 있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인 나의 공급자 - 여호와 - 이레 - 로 계시하셨습니다.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왜 모리아 산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의 어느 산으로 보내셨을까? 아브라함이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창 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희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해를 앉아 기다렸습니까? 바로 이곳까지 오기 위한 믿음과 순종이 온전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수년이 걸렸습니까?

경배 뒤에 방문이 따라 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 그 뒤에 천사들이나 하나님 자신이 제단이 쌓여 졌던 그 장소에 나타났음을 성경은 빈번히 말해 줍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 이삭 - 뻘엘

우리는 창세기 12 장에서 아브라함이 뻘엘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듣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야곱은 뻘엘로 왔고, 거기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꿈으로 봅니다.

창 28:12, 13a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뻘엘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우리 만치 두려운 일들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함으로 급격한 돌파가 생긴 그 장소에서, 그 곳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경배는 문을 엽니다

창 28:16-17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경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시 24: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 - 목자의 들판

다윗이 목자였을 때, 베들레헴 외곽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가 하늘의 문을 연 것일까요?

수 백년이 지나 그 장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

타나 노래하였습니다.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양은 휘장을 엮니다

루시퍼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로 하늘 보좌를 덮는 대신에 흑암의 휘장으로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사 60: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탄은 각 지역을 관할하는 어두움의 주관자들(prince rulers)을 임명하였습니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어두움의 휘장의 목적은 모든 이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후 4:3~4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강력한 전쟁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제단을 쌓을 때 강력한 일들이 생깁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휘장의 “덮는 표면”이 찢어져, 파괴됩니다. 각 지역의 어두움의 주관자가 패퇴됩니다.

사 25: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막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하늘 문을 열어 놓을 때: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 그 분이 오실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

다니엘 10 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바사국 군(君)에 의해 21 일 동안 가로 막혔습니다.

영적 전쟁이 천상에서 일어 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이 자신을 도와 주러 올 때까지 바사국의 어두움의 주관자에 의해 지체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승리

여호사밧의 승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승리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10 과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한바 있습니다.

유다가 세 나라의 적들에 의해 침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나머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대하 20:15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18 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향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향오를 이루라(=위치를 잡아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하게 경배를 했습니다!

19 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양하는 이들을 선두에 세워라

21~22 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적들은 자멸함

23~24 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땅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적들이 수적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저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위치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급격한 돌파”가 영적인 영역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성도들의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찬양을 통한 전쟁

한 때 천상에서 찬양자들이었던 우리의 적들은 찬양 소리를 참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호와로부터 파송받은 천사 천사들은 악한 세력들에 대해 대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악한 세력들은 혼란 중에 서로 서로 부딪힐 것이며, 패퇴당할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적들 중 대부분이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게 소리 지르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적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전쟁 음악이 차지하는 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은 우리의 권세가 적들에 대해 이미 승리한 권세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미 패배당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전쟁은 적에 대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찬양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 149:6-9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 30: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사밧 군대의 선두에 있던 찬양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전쟁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 하였습니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채찍을 맞았고, 매를 맞았으며, 그들의 발에 착고를 찬 채 감옥 속으로 던져 졌습니다.

행 16:25-26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찬양의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

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항상 강력한 결과들이 따라옵니다. 승리는 높은 찬양과 친밀한 경배를 통해 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바에 대해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시 68:1a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흠으시며...**

문 제

1.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2.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급격한 돌파”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3. 여호사밧 왕의 통치 하에 있던 유다 군대들은 어떻게 포위하고 있는 적들에 대해 “급격한 돌파”를 얻었습니까?

제 14 과

찬양과 경배 지도자로서의 자질

우리가 만일 찬양과 경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기대하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력에 대한 계획과 모형을 따라야만 합니다.

목사님과 기타 다른 섬기는 사람들

영적 지도력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이들인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내의 효과적인 찬양과 경배의 사역을 위한 영적 지도력과 권위, 방향과 모형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벧전 5:2~3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적극적인 참여

목사님과 기타 다른 섬기는 장로들이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찬양과 경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 회중 전체가 참여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딤후 4: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좋은 본보기

만일 사역자들이 늦게 참석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교회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을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 속에 많은 사람들도 같은 태도를

가져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역을 위한 준비

담당 목사와 다른 사역자들 역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기름부음이 풀려나오도록 그들의 심령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 6: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궤(供饋)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령님의 흐름을 분별함

5 중 사역자들은 그 특별한 예배를 위한 성령님의 흐름과 움직임을 분별하기 위해 주의가 산만해 지는 것을 피하고, 그 예배에 자신을 완전히 주의 집중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배 인도자들을 임명함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교회 내의 시무 장로들에 의해 임명하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권위 밑에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찬양과 경배는 목사님이나 예언자들 중의 한 사람 혹은 이 분야에 은사를 받은 시무 장로 중의 한 분이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서적 본보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중 몇 명을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악사들로 임명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16:4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임명한 예배단

다윗이 임명한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자

아삽에게 악사들의 두목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대상 16:5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맞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성가대 인도자

성가대 인도자도 역시 임명해야 합니다.

대상 15:22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대상 15:27b 다윗과 궤를 멘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겹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 에봇을 입었고

악기를 다루는 자들

악사들도 또한 경배를 위해서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상 25:6~7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

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팔십팔 인이라.

예배인도자 - 그들의 사역 은사 내림과 훈련

예언자로서의 기능

종종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선택한 사람들은 예언자의 “은사내림”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흔히 예언의 영을 실제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25:1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예언하게 하였으니/영어성경 번역)

대상 25:3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맞디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음악에 능숙하고, 훈련되어야 함

여호와를 향해서 음악으로 섬기는 부름과 책임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성악가 혹은 악사든 간에 누구나 능숙한 음악가가 되도록 집중적인 훈련과 연습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대상 25:6~7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 팔십 팔 인이라.

예배 인도자의 자격

>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의 이처럼 특수하고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이며 부르심이므로 존중해야 되며 또 개발 되어야 됩니다.

요일 2:20,27 너희는 기록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경배자

찬양 인도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체험해 본적이 없는 장소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적인 찬양과 경배가 인도자 개인의 매일의 삶과 헌신의 일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요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영적으로 성숙해야 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의(혹은 그녀의) 지혜, 체험과 익숙한 영적 지도력은 몸된 교회 전체를 격려해서 참여케 할 것입니다.

엡 4:12-13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지도자적 역량**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또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 **영적으로 민감할 것**

그들은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경계하고, 예민해야하는 동시에 성령의 기름부음과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민감해야 합니다.

시편 78:72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 하였도다.

➤ **순복함**

그들은 교회 내의 목사님과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벧전 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예배 인도자는 증명된 인격의 소유자로서 그의 사생활과 정직함에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그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께 주의를 돌리게 할 것이며, 결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헌신되고, 신실해야 함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지키는 것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전 4: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악사들

능숙한 악사들로서 채택됨

종종 예배 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사들은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재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가 어떤 사람의 부름에 합당한 필요한 기교를 개발하도록 충실하게 배우고 또 연습하는 책임을 최소로 줄여 주지 않습니다.

대상 25:6~7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 팔십 팔 인이라.

악기들

찬양과 경배에는 모든 세 가지 종류의 악기들(현악, 타악과 관악)이 다 쓰여집니다.

시 150:3~5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재능과 악기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실 때는, 구약에 기록되었던 찬양과 경배에 쓰여진 악기들 이외에도 추가적인 악기들을 사용함으로써 찬양과 경배의 질과 차원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첨가됩니다.

지휘자는 강당의 크기의 비례에 맞추어 악기들의 종류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악기들을 가능한 한 많이 취사선택하여 더할 수 있습니다.

연합, 화음, 음량

악사들은 인도자의 방향에 맞추어 민감하고도, 민첩해야 됩니다. 다른 악기들과 연합하고, 화음을 이루고,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을 요하게 됩니다.

악기들은 주의를 자신들에게 끌지 않으며, 예배자들의 목소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음량으로 노래 가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할 것

악사들은 “익숙한 음악가”로서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찬양과 경배 동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악사들은 음의 화음과 연합만큼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대하 34:12 그 사람들이 진실히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트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솔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회중

찬양과 경배에 모든 성도가 완전히 전념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며, 또 책임입니다.

히 2: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준비

교회나 성도의 모임에 도착하자 마자, 각자는 자신의 심령을 준비하고 찬양과 경배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대

찬양과 경배에 참석할 때마다, 예기하고 기대에 찬 태도가 우리를 모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킴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임재 안에서 보내게 될 한 순간이라도 놓치기를 바라는 안 되겠습니다.

문으로부터 궁정, 밖 앞뜰과 안뜰을 거쳐서 “들어가는” 절차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의 임재로 한 걸음씩 한걸음씩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경배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채로 뒤에 남아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도착하도록 계획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을 준비하여 차분하도록 하며 또 찬양과 경배의 흡족한 체험과 표현으로 여호와의 섬기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 시작에 앞서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됨을 발견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음악의 첫 번째 음조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즐거운 기대와 영의 긴박함과 결코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는 기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 속에서 전적으로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목소리와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섬기는 것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시 138: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예배 인도자를 따를 것

우리는 너무나 영으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찬양과 경배 인도자를 따라갈 수 없거나 또 흐름에 끼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흐름과 움직임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자신의 생각들이나 혹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환등기 화면에 비추인 가사들이나, 찬송가 책은 단지 가사를 알려주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가사를 쳐다보고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관심을 계속해서 화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다른 것은 다 완전히 잊고서 여호와께 집중하여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로 눈을 감거나 혹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배 인도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노래함

예배 인도자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찬양이 음악적인 “방언” 찬양으로 표현하도록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영으로” 노래할 때,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하늘나라 언어”의 자유로운 흐름에 맡기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그에게 민감하게 될 때에 가사뿐만 아니라 곡조까지도 마련해 주십니다.

신령한 노래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간혹 성령은 전체 회중에 “신령한 노래”를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내놓기 전에 지도력으로부터 요구되는 권한을 얻어 놓도록 하십시오.

방언을 시작한 뒤에 마음에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예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사와 곡조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찬양의 새로운 곡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간혹 받게 됩니다.

엡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발성(Vocal) 은사들

간혹 찬양 시간 도중에 노래의 끝에 가서 방언, 방언 통역 혹은 예언의 메시지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내놓기 전에, 지도자가 요구하는 권한이나 승인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 메시지는 전 회중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겠습니까.

침묵을 존중하십시오

찬양과 경배 시간 도중에 있는 중단이나 침묵마다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들어갔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합 2:20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문 제

1. 예배 인도자의 성경적 자격과 기능을 서술하십시오.

2. 악사들의 성경적 기능을 서술하십시오.

3. 찬양과 경배에서 회중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제 15 과

예배 인도자로서 섬김

준비

성공적이며 또 기름부음이 있는 경배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 전, 많은 시간에 걸친 기도의 준비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번에 특별한 예배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뒤에 오는 다른 예배의 견본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 특정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민감하도록 하십시오.

예가 3:22~23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어떤 찬양과 경배 예배에서는, 거의 전체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양으로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예배가 한층 빨리 집중적인 경배 시간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노래를 선택함

가능하면, 그 예배를 위해서 계획 중인 설교 내용의 주제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한 노래들이 잘 어울리며 또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영적인 기초 작업을 쌓게 됩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 동안에 쓰여질 만한 노래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르는 데 신중을 기하십시오.

회중 전체가 힘 안 들이고 부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노래들을 선택하십시오.

때때로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가사의 내용이 경배자들의 생각과 소원의 일부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노래들을 배열함

노래들은 다음과 같은 견본을 따르는 방법으로 배열하십시오.

“들어가는” 때에 감사 드림의 노래를; 그 다음에는 복돋워서 좀더 높은 차원의 몸과 성대가 참여토록 찬양의 노래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풀어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급상승하는 차원의 찬양의 노래들을; 마지막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는 경배의

노래들이 되도록 배열하십시오.

경배자들이 경배와 찬양의 노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노래들을 그룹으로 나누되, 꾸준히 전진하여 좀더 높은 차원의 경배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세심하게 부르게 될 노래들의 키(KEY)들을 선택하고, 또 같은 주제의 노래들로 그룹을 만드십시오.

반주자들과 OHP 를 조절하는 사람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사용될 경우, 노래들의 순서와 그 노래들의 키를 보여 주는 명단을 배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반주자에게 악보를 준비해 놓는다든가 혹은 악보철에서 그 노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주자들에게 키를 바꾸는 데 사용되는 코드(chords)를 마련해 주도록 하여서 노래와 노래 사이에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새 노래들을 부르게 될 때에는, OHP 가 쓰인다면 미리 가사를 OHP 필름에다 적어서 준비해 두십시오.

시 33: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OHP 를 조절하는 사람은 OHP 필름들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배열해 두어야 합니다.

이 노래에서 저 노래로 옮겨갈 때 노래들이 끊김이 없이 - 성령의 흐름까지도 - 물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준비

훌륭한 인도자는 절대로 예배에 “식은 상태로”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비는 집회 시작 전에 예배를 위한 성령의 주제를 분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찬양과 경배와 기도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야 인도자는 “목표물에다 적중”하는 첫 번째 노래(Chorus)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마다 인도자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로부터 가진 시간에서 오게 됩니다.

육신적 준비

경우에 맞도록 알맞는 옷차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옷차림이 경배자들의 주의를 흐트러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개인적인 위생, 청결과 단정함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로서 나타낼 때 중요합니다.

창 41:14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끈 수염을 꺾고, 그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예배팀, 성가대와 반주자를 인도함

기도로 예배 팀의 각 구성원을 뽑으십시오. 영적 규율을 유지하며, 또 우발하게 되는 어떤 죄나 도덕적 문제를 사랑으로 하되, 단호하게 다루십시오.

각자의 재능을 격려하며, 개발토록 하여 영적 지도력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십시오. 탁월함의 수준을 높이 세우고, 각자에게 호의를 보이십시오. 신실함과 헌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됨을 요구하십시오.

예배 전에 예배 팀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주의사항

하나님께 영광 돌림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도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 17: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민감할 것

인도자는 예배 진행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나님과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 예배에서 같이 협력하여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 기악으로 반주하는 사람들에게
- 장로들의 지혜와 지도력에게
- 전 회중에게

대답할 것

여러분의 부르심과 능력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되, 만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뛰어남으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깨달으십시오.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들을 인도해 들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대

신에 여러분은 능숙하게 그들 모두를 그들이 처해 있던 곳에서부터 나와 한 몸을 이루어, 단체적으로 성령 안에 있도록 인도해 들어야 합니다.

회중과 즉각적으로 친근해지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지도력에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곧장 그들을 찬양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 감사함으로 “문”을 통과하게 하고 또 하나님 의 임재의 체험을 기대하게끔 역사하는 어떤 종류의 노래들과 또 영적인 기교 들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재능들의 일부분인 기 림 부음으로 이러한 능력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들어가며” 또 한 몸이 되어 여호와 의 임재로 움직여 들어 가는지의 여부를 재빨리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재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도록 권고하십시오. 들어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성령의 흐름을 막으려고 드는 방해하는 영들을 묶으십시오. 만일 필요하다면 또 다른 노래로 옮겨 가 십시오.

의욕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로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이 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불신자일 수도 있 고, 혹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 리고 다른 이들은 원수에게서 정죄를 당하고 있거나 혹은 염려의 짐을 짊어지 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못하는지 도 모릅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당신은 참여해서 들어오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들어올 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전혀 의욕이 없는 사 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성도들의 전체 회중에게 우리의 전 관심을 모아 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다루든가, 가르치거나 혹은 좀 더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도록 할 것

여러분이 눈을 감게 되면, 여러분은 예배로 인도하여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 을 격리하는 것이 됩니다. 인도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찬양 예배 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인도자는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두절될 정도로 너무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도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무아지경에 들어갈 만한 때는 자기 자신의 개인 예배 시간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때입니다.

사람들과 눈과 눈을 맞춤으로써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도하십시오. 예배 인도자의 주어진 은사의 일부는 회중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경배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찬양과 경배 도중에는 중지시키고, “설교하는” 때가 아닙니다. 짙막한 권고의 말은 때때로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의 찬양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배의 흐름을 깨거나 혹은 찬양과 경배에서 성령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안 되는 것들에 관해서 말하느라고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모두는 다 “배우는 사람들”이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배우는 과정의 일부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옮겨 가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예배가 끝난 뒤, 혼자서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실수했다고 느끼는 곳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다음 번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더욱 재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심사하고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또 당신이 제대로 잘 했던 일들에 관해서 당신을 격려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지시하시도록 하십시오. 원수가 주는 정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필요하다면, 목사님이나 다른 시무 장로님들의 충고를 구하고 청하십시오.

예배 절차

사람들을 권고함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향해 노래하게끔 권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습관이거나 혹은 그저 즐거움만을 위해서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양을 노래해야만 되고, 진정한 경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함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찬양의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으로 옮겨감

찬양과 경배의 소요되는 대부분의 시간은 “궁정”에서 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곳에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더 큰 목소리와 열정적인 몸의 표현으로 풀어 놓아야 합니다.

경배로 흘러 들어감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 성령님께 민감해야 하며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란 이유로 인해서 진정한, 깊은, 또 친밀한 경배를 드리도록 옮겨가게 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따라 가십시오

심지어 당신이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더라도 당신의 계획을 기꺼이 제쳐 놓으십시오. 당신은 다른 노래들로 더 긴 시간을 머물러 있는 동안 몇 개의 노래들을 빼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할 때에는, 급하게 다음 노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름 부음의 강도가 더 크게 자랄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성령이 하시고 있는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회중을 더 높은 차원의 찬양이나 경배에 이끌거나 또는 경배 중 그의 임재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발성 은사들

회중들 사이에서 성령의 발성 은사(Vocal Gifts)들이 역사하는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흐름을 격려하십시오. 간혹 적절한 장소에서의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서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혹은 예언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2:7~10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어떤 이에게는 권고의 짙막한 말씀이나, 성경 구절이나 혹은 신령한 노래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시 40: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배 인도자는 예배 전체에 시종일관 영적인 권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회중일 경우는, 메시지를 내놓기 전에 승인을 얻기 위해 누구든지 손을 들거나 혹은 장로 중 한 사람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시지는 확장 장치를 쓰든가 혹은 전체 회중이 충분히 들을수 있는 큰 음성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일들은 상호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각종 성령의 나타남이 정당하고,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전체 회중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전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지러움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전 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예배가 어지러움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게 되면, 손을 써서 혼란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십시오. 만일 필요하다면,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해명한 후, 그 상황을 밝히십시오. 그러한 시간을 성령 안에서 바른 길로 움직이도록 가르치는 시간으로 쓰십시오.

침입과 역류를 피하십시오

만일 성령의 흐름이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침입이 있다면, 인도자는 그 일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더 이상 그 흐름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여야 합니다.

“영 분별” 은사를 개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때(timing)에 민감하도록 배우십시오. 침입은 하나님의 완벽한때가 아닐 때 나오는 성령의 발성 은사의 아름다운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신령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익숙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예배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흐름의 한 가운데로 다시 인도할 수 믿음과, 담대함과, 분별력과, 지혜와 재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됨

익숙한 찬양 경배 인도자는 자신과 회중간의, 회중 속에 있는 개개인들간의, 그리고 전체 회중과 성령간의 하나됨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하나됨이 점점 더 강하게 되면,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큰 단계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

예배 인도자는 목사님이나 장로들이 설정해 놓은 시간을 벗어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성령의 움직임이 찬양과 경배를 연장된 시간으로 인도하고 있으면, 계속 진행해 나가기 앞서 그 모임에 대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신호를 보내어 여러분의 영과 상부의 승인을 조심스럽게 받도록 하십시오.

끝을 맺음

경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남겨 둬으로써 찬양과 경배 예배를 종결지을 때, 성령에게 민감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찬양의 위대한 궁정 뜰의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중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친밀한 임재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여러분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순간 동안, 성도들 각자의 삶과 영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배를 마칠 때에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침묵의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끝나고 나올 때, 예배 도중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 하나님 자신에게도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 드렸던 - 체험하도록 하였음

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 제

1. 찬양과 경배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익숙한 예배 인도자가 갖추어야만 하는 어떤 준비를 열거하십시오.
2. 어떻게 예배 인도자가 더 큰 차원의 찬양과 경배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만 드십시오.
3. 찬양과 경배 도중에 “기름 부음을 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십시오.